

자기통제, 공정함, 행복 간 구조적 관계에 관한 융합연구

최지혜^{1*}

¹을지대학교 유아교육학과

Convergence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 among Self control, Fairness, and Happiness

Jihye Choi^{1*}

¹Divis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ulj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통제와 공정함 및 행복 간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융합연구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 275명(남:107명, 여:168명)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자기통제와 공정함, 행복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조사하였고, 선행연구에 따라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상관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자기통제는 공정함을 매개로 행복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정함과 행복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통제가 공정함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공정함을 매개로 대학생의 행복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자기통제와 공정함이 대학생의 행복에 있어 교육적, 심리사회적 개입을 제공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주제어 : 자기통제, 공정함, 행복, 융합, 모델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convergenc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self control, fairness, and happiness. It is to determine whether fairness had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control and happiness. Participants were 275 undergraduate students. Self control, fairness, and happiness scal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factor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ere conducted. The present study u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examine the relation among variables. The analyses revealed that the present data best fit the research model in which self control were directly associated with happiness and mediated by fairness($\chi^2(51)=91.723$, TLI=0.919 CFI=0.937 RMSEA=0.054). The results indicate that self control affect happiness directly. And also self control affect happiness indirectly by mediation of fairness. Self control had a positive effect on fairness and happiness. This suggests that it is important to have educational and psycho-social interventions to improve happiness of undergraduate students.

• Key Words : Self control, Fairness, Happiness, convergence, model.

1. 서론

인간의 행복은 다양한 개인 내적, 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개인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

*Corresponding Author : 최지혜(jiheyh@eulji.ac.kr)

Received June 28, 2017

Accepted September 20, 2017

Revised August 31, 2017

Published September 28, 2017

다. 개인은 자기통제를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환경과 세상에 보다 잘 적응하게 된다. 이처럼 자기통제는 인간의 적응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며, 개인의 행복과 웰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1,2,3,4]. Verme[5]는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자유로운 선택과 내적 통제라 하였는데,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자기통제를 통해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들은 인간에게 있어 자기통제가 중요한 강점이라고 본다.

한편, 자기통제는 지속가능행동의 중요한 선행 요소이다[6]. 지속가능행동(sustainable behavior)이란 인간과 사회,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행동 조합으로[7], 그 중에서도 공정함(fairness)은 사회, 물리적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기회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자기통제는 이러한 지속가능행동의 실천과 유지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어떤 일에 열의를 갖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자기통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8,9].

이러한 자기통제와 공정함은 개인의 심리적 요소와 관련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행복이다. Hofmann et.al.[10]은 자기통제가 행복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행복은 외적 요인보다 내적 요인인 자기통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11,12]. 지속가능행동 또한 개인 및 사회의 주관적 안녕과 행복을 이끄는데, 선행연구에서도 공정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주관적 행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14,15,16,17].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기통제와 공정함의 긍정 심리적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다.

많은 제한과 어려움이 있으나, 개인 및 사회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노력은 지속가능한 사회에서 필수적이다[18,19]. 그러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교육학과 심리학, 인문학간 융합연구는 더욱 부족하다. 특히 자기통제 연구는 그동안 주로 부적응적 행동과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며, 행복이나 웰빙과 같은 긍정 심리구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자기통제가 부적응적 행동에 대한 억제보다는 습관과 같은 긍정 행동과 더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20,21]. 또한 행복에 관한 선행 융합연구에서도 학생들의 긍정적 태도가 삶에 대한 행복과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22,23,24,25,2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와 공정함, 행복 간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긍정심리학적 융합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자기통제

인간은 가치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정서, 행동, 주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는데, 이를 자기통제라 한다[27]. 자기통제는 개인의 행복 및 안녕, 건강한 삶과 관련된다[12]. 자기통제력이 높은 개인은 일상에서의 적응력이 높아서 문제 상황에서 부정 정서를 덜 경험하고 삶의 만족도도 높다[27]. 이처럼 자기통제는 보나나 학습수행과 건강, 사회적 관계를 이끈다[28]. 자기통제는 순간적인 욕구에 저항하고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능력을 반영한다. 따라서 욕구나 욕망을 억제하는 순간에는 일시적으로 즐거움을 잃게 되나, 그러한 행동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가치 있는 성취에 만족감을 얻는다[10]. 이러한 관점은 자기통제가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이끌고 순간적인 긍정 정서를 누적시켜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과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공정함

공정함(fairness)은 사회, 물리적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기회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공정함은 유한한 자원의 공정한 배분 뿐 아니라 인간과 사회, 물리적 환경 간 조화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6,29]. 따라서 공정하고 환경과 미래세대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자원을 아끼고 보존하여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노력과 행동이 자신의 안녕 뿐 아니라 타인의 안녕에도 영향을 미쳐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29].

2.3 행복

행복은 인생의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30]. 즉,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스럽게 느끼는 주관적 상태를 의미한다[31]. 행복의 판단에는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가가 중요한데, 공정한 행동을 통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긍정 정서를 갖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공정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신을 행복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17]. 이처럼 행복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비롯해 개인의 건강 행동, 적응과 관련되며, 이들과

의 관련 활동을 통해 우리의 삶에 다양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

2.4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자기통제와 공정함, 행복 간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계성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6,12,16,17]. 먼저 각 변인들의 영향관계를 고려하여 자기통제가 공정함을 매개로 행복에 직간접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고, 이를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자기통제가 공정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2) 공정함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3) 자기통제가 공정함을 매개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대학생 275명(남:107명, 여:16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집방법은 임의표집을 이용하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29명, 2학년이 132명, 3학년이 99명, 4학년이 15명이었으며, 전공별로는 인문계열 33명, 사회계열 103명, 자연계열 73명, 공학계열 50명, 예체능 계열 16명으로 나타났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Tangney et.al.[27]의 자기통제척도(Self control scale)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안정적 추정치와 예측타당도를 얻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항을 이용하였다[32]. 본 연구에서 이용한 4문항의 내용은 ‘나는 쉽게 주의가 산만해진다(역문항)’, ‘나는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재미있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안하려고 한다’ ‘나는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이 힘들다(역문항)’이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뢰도는 0.67이었다.

공정함은 지속가능행동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7]. 지속가능행동척도는 총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친환경적 행동, 이타적 행동, 공정함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함 척도 4문항을 이용하였으며, 문항의 예시는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상하 관계에 상관없이 인간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누구나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일은 공정하게 나누어야 한다’이다. 척도의 형식은 5점 리커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척도의 신뢰도는 0.68이었다.

행복(Happiness)은 Lyubomirsky와 Lepper’s의 행복척도를 이용하였다[33]. 이 척도는 7점 리커트 형식으로 대학생들의 행복감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 단일요인에 부합되는 4문항을 이용하였다. 문항의 예시는 ‘나는 행복하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나는 행복하다’ ‘나는 대체로 행복하다’, ‘나는 대체로 행복하지 않다(역문항)’이다. 5점 리커트 형식으로 측정하였고 척도의 신뢰도는 0.72였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 공정함, 행복 간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에 따라 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의 적합도와 직간접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Amos 20.0 을 이용하였다. 측정 및 구조모형의 적합도 평가에는 최대우도치(Maximum likelihood)를 이용하였다. 적합도 비교는 χ^2 (Chi-Squared statistics), χ^2/df (degree of freedom),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 (Turker-Lewis Index),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지수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최종 모형의 직간접 효과와 경로계수를 확인하였다. 변인 간 상관관계와 척도의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분석에는 SPSS 19.0을 이용하였다.

4. 연구 결과

4.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각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값을 비교하였으며, 이들 값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변인들 간의 상관은 전체적으로 0.12($p<.01$)에서 0.31($p<.01$)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각 변인들 간 상관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낸 변인은 행복과 공정

함 변인이었다. 각 변인 간 성별 차이를 알아본 결과, 자기통제 변인에서 성별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기통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Self control	Fairness	Happiness
Self-control	1		
Fairness	.12*	1	
Happiness	.19**	.31**	1
Male (M/SD)	13.17(2.46)	18.03(1.70)	14.91(2.38)
Female (M/SD)	12.55(2.32)	17.99(1.75)	14.88(1.64)
t	2.111*	0.159	0.097

* $p < .05$, ** $p < .0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통제, 공정함, 행복 요인의 문항에 대한 구성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주성분분석과 직교회전방식이 이용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총 설명분산은 53.4%로 나타났고,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다음과 같다(<Table 2> 참고).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items	factor 1	factor 2	faactor 3
item1	.824		
item2	.795		
item3	.600		
item4	.595		
item5		.743	
item6		.718	
item7		.706	
item8		.653	
item9			.820
item10			.786
item11			.673
item12			.618
eigen value	1.8	1.5	3.0
M/SD	12.8(2.4)	18.0(1.7)	14.9(2.0)

4.2 구조모형의 검증

자기통제, 공정함, 행복 간 구조적 관계 모형 검증을 위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았다. 적합도 검증 결과, χ^2 값은 91.723(df = 51, $p < .001$), 표준 χ^2 값은 1.978이었다.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면, TLI, CFI 가 0.919, 0.937이었고, RMSEA는 0.054, AIC는 169.7로 나타났다. χ^2 값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적절한 적합도 지수 수준을 보였으며, RMSEA 또한 0.08 이하로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Model Fit Indexes

model	χ^2	df	χ^2_d	TLI	CFI	RMSEA	AIC
model1	91.723***	51	1.978	.919	.937	.054	169.7

*** $p < .001$

Note. TLI=Tur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GFI=Goodness of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4.3 경로계수

다음 <Table 4>는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를 제시한 것이다. 각각의 경로계수 값을 살펴보면, 자기통제에서 공정함의 경로계수는 0.170이고, 공정함에서 행복으로의 경로계수는 0.372, 자기통제에서 행복으로의 경로계수는 0.160으로 나타났다. C.R.값은 모든 경로에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Structural model results

variables	β	S.E.	C.R.	p
self control->fairness	.170	.079	1.991	*
fairness->happiness	.372	.117	4.188	***
self control->happiness	.160	.098	2.002	*

* $p < .05$, *** $p < .001$

<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final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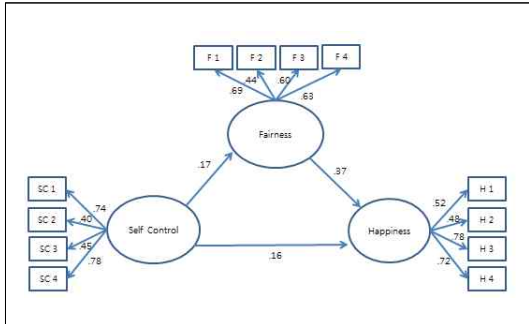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elf control->fairness	.170		.170*
fairness->happiness	.372		.372***
self control->happiness	.160	.063	.224*

* $p < .05$, *** $p < .001$

자기통제와 공정함, 행복 간의 직간접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직접효과(direct effects), 간접 효과(indirect effects) 및 총 효과(total effects)를 알아보았다. <Table 5>에는 이러한 효과값 들이 제시되어 있다. 최종 구조모형의 직·간접 효과 값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기통제의 경우, 공정함에 0.170의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함은 행복에 0.372의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통제는 행복에 0.160의 직접효과와 0.063의 간접효과, 0.224의 총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의 z test 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z=1.716$ ($p < .05$)로 나타

나 자기통제와 행복 간 관계에서 공정함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모형의 검증 결과, 자기통제는 공정함을 매개로 대학생의 행복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공정함은 대학생의 행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1] Structural Model of self control, fairness and happiness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통제가 공정함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구조적 관계모형을 설정한 후 각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았다. 먼저,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자기통제는 공정함을 매개로 행복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는 공정함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기통제가 공정함과 관련된다는 Cox[34], Corral-Verdugo et al.[29]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자기통제는 개인의 행복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10,12,27].

본 연구에서 지속가능행동의 하위 요소인 공정함은 대학생의 행복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정함이 행복을 예측한다는 Fehr와 Schmidt[35], Tabibnia et al.[3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Bjørnskov et al.[16], Krehbiel 와 Cropanzano[37]도 높은 공정함을 가진 개인이 행복을 더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각 변인 간 상관관계에서도 공정함과 행복 변인 간 상관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는 대학생의 행복에 자

기통제와 공정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자기통제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공정함을 매개로 행복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상이 공정하기를 기대하며,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게 될 때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38,39]. 따라서 공정함에 대한 위반은 개인으로 하여금 분노와 같은 부정 정서를 야기하고, 이것이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감을 경감시키게 된다[38,40,41,42]. 그리하여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유지에 있어 공정함은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기통제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자기통제와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Gottfredson과 Hirschi's[43], Schreck[44]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Palma et al.[45]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지식구조에 더 빠르게 접근할 뿐 아니라 과제수행에서 자기통제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Stewart[46]는 자기통제 구인에서 특별한 성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통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지식의 축적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강조한 자기통제와 공정함은 학습자의 행복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나 그동안 행복이나 긍정정서, 교육과 관련한 융합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행연구를 보면 자기통제는 학습자의 성공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다[46]. 이는 대학생의 행복에 있어 의지적인 요소인 자기통제가 삶의 만족과 안녕에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공정함 또한 학습자의 행복에 있어 중요한데,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 학습자의 부정 정서가 증가하고 삶에 대한 만족감도 저하되기 때문이다[37]. 학습자의 학업 성공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긍정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요소들은 오픈 마인드, 학습 즐거움, 공정함, 리더십, 자기통제와 같은 요소들이다[47]. 이처럼 학업성공과 학습자의 안녕을 위해서는 긍정 심리 변인과 함께 다양한 융합연구가 필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관심이 부족하였던 자기통제와 공정함 변인에 관심을 갖고, 학습자의 행복과 이들 변인의 관련성을 탐색한 융합연구이다. 이러한 융합연구는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사회와 학습 환경 속에서 학습자의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그동안 대학생의 행복 및 학업성공과 관련하여 적은 관심을 받았던 자기통제, 공정함, 행복 변인을 함께 연구함으로써, 개인 및 사회의 안녕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나, 연구대상과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연구에 활용한 척도의 신뢰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척도의 신뢰도 기준에 대해 Mueller[48]와 Clark과 Watson[49]은 일정 수치 이상을 기준으로 삼기 보다는 표집 수 100이상과 내적일관성 지수 .4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연구대상 확보를 통해 연구 결과의 보완 및 일반화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시도가 긍정적인 교육환경 조성 및 학습자의 행복 및 사회의 안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Y. Jin & J. S. Lim,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Vitality, and Self-Regulation in Elderly Exercise Participants", *J.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44, No. 1, pp. 519-529, 2011.
- [2] B. Sung & S. Yoon, "Definition of Happiness and Its Determinants", *J. of brain education*, Vol.6, pp.103-134, 2010.
- [3] Mischel, W., Cantor, N., & Feldman, S., *Principles of self-regulation: the nature of willpower and self-control*.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pp. 329-360). New York, NY, US: Guilford Press, 1996.
- [4] Rothbaum, F., Weisz, J. R., & Snyder, S. S., "Changing the world and changing the self: A two-process model of perceived control",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2, No. 1, pp. 5-37, 1982.
- [5] Verme, P., "Happiness, freedom and control", *J.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Vol. 71, No. 2, pp. 146-161, 2009.
- [6] Corral-Verdugo, V., Comportamiento proambiental: Una introducción al estudio de las conductas protectoras del ambiente, Santa Cruz de Tenerife, España: Resma, 2001.
- [7] J. Choi, "Examining the Factor Structure and Validation of the Sustainable Behavior Scale", *J. of environmental education*, Vol. 29, No. 1, pp. 56-65, 2016.
- [8] Bakker, A. B., Demerouti, E., Taris, T. W., Schaufeli, W. B., & Schreurs, P. J., "A multigroup analysis of the job demands-resources model in four home care organiz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Vol. 10, No. 1, pp.16-38, 2003.
- [9] Howell, A. J., "Flourishing: Achievement-related correlates of students' well-being", *J. of Positive Psychology*, Vol. 4, No. 1, pp. 1-13, 2009.
- [10] Hofmann, W., Luhmann, M., Fisher, R. R., Vohs, K. D., & Baumeister, R. F., "Yes, but are they happy? Effects of trait self control on affective well being and life satisfaction", *J. of Personality*, Vol. 82, No. 4, pp. 265-277, 2014.
- [11] J. Gu & E. Kim, "Integrated Relationship Among Psychological Trait, Life Experience, and Subjective Well-being",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ociety & Personality*, Vol. 20, No. 4, pp. 1-18, 2006.
- [12] Penninx, B. W., Guralnik, J. M., Bandeen Roche, K., Kasper, J. D., Simonsick, E. M., Ferrucci, L., & Fried, L. P., "The protective effect of emotional vitality on adverse health outcomes in disabled older women", *J.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Vol. 48, No. 11, pp. 1359-1366, 2000.
- [13] Gardner, G., & Prugh, T., *Seeding the sustainable economy*. State of the World, 2008.
- [14] Talbert, J., *Redefining progress*. En Starke, L. (Ed.), *State of the Worl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8.
- [15] Zelenski, J. M., & Nisbet, E. K., "Happiness and feeling connected: The distinct role of nature relatedness", *Environment and behavior*, Vol. 46,

- No. 1, pp. 3-23, 2014.
- [16] Bjørnskov, C., Dreher, A., Fischer, J. A., Schnellenbach, J., & Gehring, K., "Inequality and happiness: When perceived social mobility and economic reality do not match", *J.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Vol. 91, pp. 75-92, 2013.
- [17] Chibucos, T. R., Leite, R. W., & Weis, D. L., *Readings in family theory*, Sage, 2005.
- [18] Flavin, C., *State of the world, our urban future, a world watch institute report on progress toward a sustainable society*, 2007.
- [19] O'Brien, K., & Leichenko, R., "Human security, vulnerability and sustainable adaptation", *Human Development Report*, pp. 1-2, 2007.
- [20] Hofmann, W., Baumeister, R. F., Förster, G., & Vohs, K. D., "Everyday temptations: an experience sampling study of desire, conflict, and self-control",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02, No 6, pp. 1318-1336, 2012.
- [21] Imhoff, R., Schmidt, A. F., & Gerstenberg, F., "Exploring the interplay of trait self control and ego depletion: Empirical evidence for ironic effect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Vol. 28, No. 5, pp. 413-424, 2014.
- [22] S. W. Lee, "Effects of Positive Attitude of Laughter Recreation Convergence Education on Psychological Happines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3, pp. 37-49, 2015.
- [23] S. W. Chung, Rail Hwang, Y. S. Lee,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4, pp. 265-272, 2017.
- [24] M. K. Cho, "A Convergence Study of the Influence of Grateful disposi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on Stress coping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4, pp. 101-109, 2017.
- [25] M. K. Cho, "The Relationships among Happiness, Happiness promotion activities and Self-reflection in the Convergence Socie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7, pp. 303-313, 2015.
- [26] S. Y. Kim, "Convergence Study on The Influ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Stress in Their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Decision Attitude,"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6, No. 4, pp. 115-122, 2016.
- [27] Tangney, J. P., Baumeister, R. F., & Boone, A. L., "High self 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 of personality*, Vol. 72, No. 2, pp. 271-324, 2004.
- [28] Duckworth, A. L., & Carlson, S. M., "Self-regulation and school success. Self-regulation and autonomy: Social and developmental dimensions of human conduct", Vol. 40, pp. 208-254, 2013.
- [29] Corral-Verdugo, V., Mireles-Acosta, J., Tapia-Fonllem, C., & Fraijo-Sing, B., "Happiness as correlate of sustainable behavior: A study of pro-ecological, frugal, equitable and altruistic actions that promote subjective wellbeing", *Human Ecology Review*, Vol. 18, No. 2, pp. 95-104, 2011.
- [30] Seligman, M. E.,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Vol. 2, pp. 3-12, 2002.
- [31] S. Gwon, "The Relation between Desire and Happiness from the Viewpoint of Psychology", *Philosophy*, Vol. 36, pp. 121-152, 2010.
- [32] Bergkvist, L., & Rossiter, J. R. "The predictive validity of multiple-item versus single-item measures of the same constructs", *J. of marketing research*, Vol. 44, pp. 175-184, 2007.
- [33] Lyubomirsky, S., & Lepper, H. S.,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46, No. 2, pp. 137-155, 1999.

- [34] Cox, Sally P., Leader Character: A Model of Personality and Moral Development, unpublished dissertation,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Tulsa, Tulsa, 2000.
- [35] Fehr, E., & Schmidt, K. M., "A theory of fairness, competition, and cooper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4, No. 3, pp. 817-868, 1999.
- [36] Tabibnia, G., Satpute, A. B., & Lieberman, M. D., "The sunny side of fairness: preference for fairness activates reward circuitry (and disregarding unfairness activates self-control circuitry)", Psychological Science, Vol. 19, No. 4, pp. 339-347, 2008.
- [37] Krehbiel, P. J., & Cropanzano, R., "Procedural justice, outcome favorability, and emotion", Social Justice Research, Vol. 13, pp. 337 - 358, 2000.
- [38] Homans, G. C.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 1974.
- [39] Pillutla, M. M., & Murnighan, J. K., "Unfairness, anger, and spite: Emotional rejections of ultimatum offer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 68, No. 3, pp. 208-224, 1996.
- [40] Allred, K. G., "Anger and retaliation: Toward an understanding of impassioned conflict in organizations", Research on negotiation in organizations, Vol. 7, pp. 27-58, 1999.
- [41] Bies, R. J., The predicament of injustice: The management of moral outrage.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987.
- [42] Bies, R. J., Tripp, T. M., & Kramer, R. M., At the breaking point: Cognitive and social dynamics of revenge in organizations, 1997.
- [43] Gottfredson, M. R., & Hirschi, T.,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 [44] Schreck, C. J., "Criminal victimization and low self-control: An extension and test of a general theory of crime", Justice Quarterly, Vol. 16, No. 3, pp. 633-654, 1999.
- [45] Palma, M., Segovia, M., Kassas, B., Ribera, L., & Hall, C., The Effects of Self-Control on Subsequent Purchasing Decisions. In 2016 Annual Meeting, July 31-August 2, 2016, Boston, Massachusetts (No. 235987). Agricultural and Applied Economics Association, 2016.
- [46] Stewart, S. B., Grit and self-control as predictors of first-year student success, 2015.
- [47] Seligman, M. E., & Csikszentmihalyi, M., "Special issue on happiness, excellence, and optimal human functioning", American Psychologist, Vol. 55, No. 1, pp. 5-183, 2000.
- [48] Mueller, D. J., Measuring social attitudes: A handbook for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1986
- [49] Clark, L. A., & Watson, D., "Constructing validity: Basic issues in objective scale development", Psychological assessment, Vol. 7, No. 3, pp. 309-319, 1995.

저자소개

최지혜(Jihye Choi)

[정회원]



- 2013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일
반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을지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 행복, 지속가능행동, 긍정심리, 융합학습